

2019

제2호

발간년월 2019년 9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홍현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

##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이남수 수산업관측센터 관측기획팀 팀장  
(nslee1203@kmi.re.kr/051-797-4507)

강호녕 수산업관측센터 대중어관측팀 전문연구원  
(young@kmi.re.kr/051-797-4508)

노아현 수산업관측센터 양식관측팀 연구원  
(atom@kmi.re.kr/051-797-4509)

고등어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어종으로, 국민 선호도가 높고 시장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 ‘국민 생선’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어는 정부의 자원관리 및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품종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고등어 수급통계는 수산물 수급정책 수립의 근간이며, 물가관리의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어류 수급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고등어의 생산통계가 과소 추정되고 있다. 고등어는 TAC 대상어종으로 생산통계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비계통 및 비보고 출하량이 공식통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수작업 선별 및 상자단위 위판, 고봉 입상 관행 등으로 생산량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선별인력 교육 강화, 철저한 어종별 분류, 위판 시 샘플조사 확대와 실측 강화 등을 통해 생산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동선별기 활용 및 TAC 전 업종 확대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생산통계 조사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고등어 수출입통계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최근 망치고등어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냉동 필렛 고등어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HS코드가 없어 고등어 수급통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어와 망치고등어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수산물 환산 수율표 재산정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고등어 필렛과 망치고등어에 대한 별도의 HS코드 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고등어 재고통계의 신뢰성이 낮다. 현행 수산물 재고통계는 수품원의 혼령에 근거해 시행 중이나, 적은 표본 수, 무응답 및 응답자의 일관성 미흡 등 재고조사 표본 오류의 문제와 대상

---

품목 수, 조사 주기, 단순 집계, 모수 변동성 등 비표본 오류의 문제도 상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고조사의 법제화와 재고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는 기존 법령에 대한 조항을 의무화해야 하며, 후자는 냉동·냉장수협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재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고등어의 식용과 비식용 유통량 파악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산물 수급 및 물가관리 정책은 주로 식용을 대상으로 하나, 현행 고등어류 수급통계는 비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수산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식용 고등어의 추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업종별 수협 및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의 사료용 및 미끼용 유통량 조사 및 보고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고등어의 용도별 실태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을 위해 수산물유통법 제6장(수산물 수급관리)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신설 조항에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량, 재고량, 감모량, 폐기량, 소비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및 시기 등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용도별 수산물 실태조사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이는 수산물유통법 제8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를 개정함으로써 사료용 및 미끼용 등 비식용 고등어 유통량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산물 수급통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기본계획에는 수급통계 개선방향 및 목표, 절차 및 방법, 추진전략, 중장기 로드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물유통법 제5조 제2항의 4(수산물 수급관리)를 준용할 수 있다. 둘째, 수산물 수급통계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수산물 수급통계의 일원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컨터롤 타워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는 수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셋째,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수산물 수급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는 기구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물유통법 제6장에 별도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농안법 제8조 및 농식품부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

## 국내 고등어 수급, 생산 증가했으나 수출도 늘어 재고는 안정세

### ■ 2018년 고등어 생산량, 망치고등어 생산 증가와 더불어 대폭 증가

- 우리나라 고등어 생산량은 최근 5년 평균 13만 톤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망치고등어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대폭 증가한 22만 톤을 기록했다
- 이는 2018년도 상반기의 어황이 좋았고, 자율휴어기 종료 이후 어획량이 급증했기 때문임

그림 1. 국내 고등어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2009-2018)



주: 생산금액은 고등어, 망치고등어 생산금액의 합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국내에서 어획되는 고등어의 품종은 주로 고등어와 망치고등어이며, 최근 두 어종의 어획 비중에 변화를 보이고 있음. 특히 망치고등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어종별로 보면, 2017년까지 고등어가 전체의 85~95%였으나, 2018년에는 65.6%인 14만 1,908톤이었고, 망치고등어는 34.4%인 7만 4,403톤이었음

표 1. 우리나라의 품종별 고등어 생산동향

(단위: 톤,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등어	128,557 (98.1)	131,977 (93.7)	133,733 (85.7)	104,320 (90.2)	141,908 (65.6)
망치고등어	2,471 (1.9)	8,889 (6.3)	22,244 (14.3)	11,390 (9.8)	74,403 (34.4)
합 계	131,028 (100.0)	140,866 (100.0)	155,977 (100.0)	115,710 (100.0)	216,3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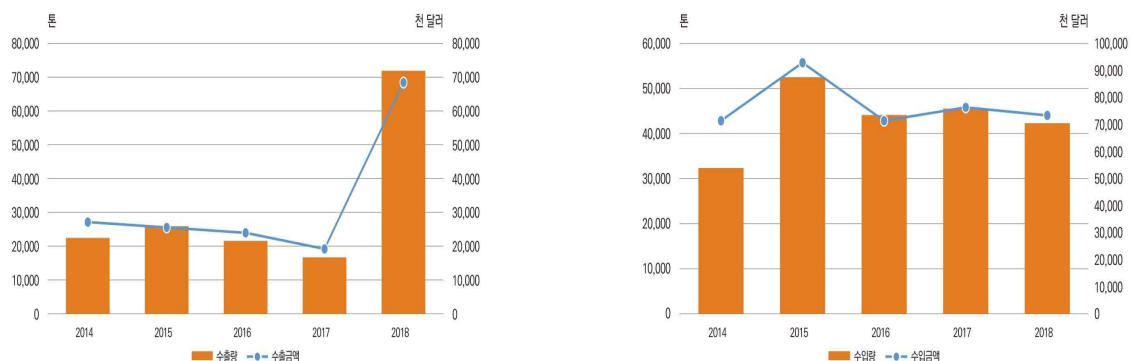
주: ( )는 품종별 비중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 고등어 수출은 아프리카 국가 수요 증가로 급증, 수입은 꾸준히 유지

- 우리나라 고등어 수출량(2018년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세 배가량 증가한 7만 1,881톤이었음.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우리나라의 고등어 수출은 세계 50여 개국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반면, 수입은 노르웨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음. 고등어 주수입국은 노르웨이로 전체의 80~90%임

그림 2. 우리나라의 고등어 수출입 추이(2014-2018)



자료: 관세청

## ■ 국내 고등어 소비량 감소세, 수출 증가로 재고량 증가는 주춤

- 국내 고등어 공급량은 24만 톤이며 이 중 7만 톤은 수출, 6만 8,000톤은 재고로 추정됨
- 따라서 고등어 소비량은 9만 7,000톤으로 전년(15만 6,000톤) 대비 크게 감소했음. 우리나라 고등어의 수출 증가로 국내 재고량은 2015년 수준을 웃도는 급증세는 피할 수 있었음

표 2. 국내 고등어 수급표(2016-2018)

(단위 : 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급량		275,876	225,419	236,444
	재고량(이입)	97,267	75,814	52,348
	생산량	133,733	104,320	141,908
	수입량	44,876	45,285	42,188
수요량		275,876	225,419	236,444
	소비량	178,599	156,145	96,643
	수출량	21,463	16,926	71,881
	재고량(이월)	75,814	52,348	67,920

주: 국내 소비량은 총수요(국내소비+수출+이월)와 총공급(생산+수입+이입)의 항등식 관계를 통해 계산하였음  
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 최근 우리나라 고등어 수급의 특징은 국내산 고등어는 내수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고, 노르웨이 고등어의 품질이나 맛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선호도 및 충성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함

## ■ 국내 고등어류 수급통계 9종, 유통(용도별) 및 소비통계는 부재

- 국내 고등어류 수급통계는 9종류가 있으며, 생산과 수출입통계는 각각 4종, 재고통계는 1종임
- 생산통계는 통계청, 수출입통계는 한국무역협회, 재고통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표시기 문제로 그 외 통계 활용이 많음

표 3. 국내 고등어류 수급통계 현황

구분	통계(조사)명	담당기관	주요내용	공표 주기
생산 통계	어업생산 동향조사	통계청	품종별, 어법별, 지역별 생산량 고등어, 망치고등어 구분	월간 연간
	TAC 어종별 소진현황	한국수산 자원공단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소진량	주간
	일자별/어종별 자료	부산공동어시장	위판량 및 위판금액 갈사~고등어(상)	일간
	수산물 위판정보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위판장별 위판량 및 위판금액	월간 연간
수출입 통계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HS코드별 수출입량 및 금액	월간 연간
	수출입실적	한국농수산 유통공사	AG·HS코드별 수출입량 및 금액	월간 연간
	수출검역 통계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품종별, 수출검역 실적	월간 연간
	수산물 통계	식품의약품 안전처	품종별, 수입검사 실적	월간 연간
재고 통계	수산물 재고량 동향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10개 어종의 재고량	분기

주: 1) 수산물 생산 및 수출입, 재고를 모두 포함한 수급통계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가 유일함. 해양수산부는 식품수급표 자료를 인용한 「해양수산 주요통계」를 통해 수산물 소비량을 포함한 수급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 작성 시에는 각 기관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당해년 자료는 2년 뒤 공표됨. 따라서 KMI에서는 주요 품종별 수급표를 매월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단, 재고량은 수품원 자료를 활용하며, 미발표 월에는 추정치를 이용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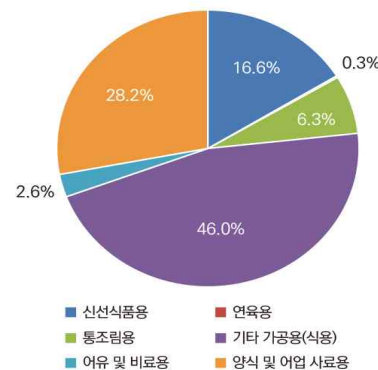
## 일본, 수산물유통조사<sup>1)</sup> 시 용도별 출하량 및 재고량 파악 철저

### ■ 일본 고등어 용도별 출하량, 70%는 식용 30%는 비식용

- 일본의 산지수산물유통조사는 전국 2,195개 어업지역 중 주요 어항의 어종별 양륙량 및 양륙 금액을 조사함(월 1회 연간 12회)
- 용도별 출하량조사는 연 1회 실시하며, 신선식품용, 가공품용, 양어 사료용 및 미끼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조사대상은 32개 어항 19개 품목(2017년 기준)으로 지역의 도매업자 및 어업협동조합을 전수조사 함
- 2017년 고등어의 용도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전체 출하량 중 식용(신선식품, 통조림, 연육, 기타 가공용 등)이 27만 1,576톤으로 69.2%이며, 비식용(어류 및 비료용, 양식 및 어업 사료용 등)은 12만 899톤으로 30.8%로 조사되었음

그림 3. 일본의 고등어 용도별 출하량(2017년)

구 분		출하량(톤)	비중(%)
합 계		392,475	100.0
식용	신선식품용	65,231	16.6
	통조림용	24,836	6.3
	연육용	1,008	0.3
	기타 가공용	180,501	46.0
비식용	어류·비료용	10,377	2.6
	양식어업 사료용	110,522	28.2



자료: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검색일: 2019.05.27.)

### ■ 일본 고등어류 재고량조사, 명확한 조사 매뉴얼에 따라 실시

- 일본의 '냉장수산물유통조사'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재고량 동향조사'와 유사한 성격의 조사임
- 동 조사는 전국 40개 산지와 14개 소비지를 대상으로 조사지역 내 10마력(1마력=0.75KW) 이상의 능력을 가진 냉장·냉동 창고 중 누적 냉장능력 80%에 도달한 창고를 선정하여 조사함
- 2017년 기준 전국 산지 340개, 소비지 173개의 냉장·냉동 창고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온라인이나 응답자 직접 기록방식 등임

1) 일본은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유통조사를 실시함. 이 조사는 산지수산물유통조사, 냉장수산물 유통조사, 소비지수산물유통조사, 수산가공통계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 고등어류 수급통계, 단기 및 장기적 개선방안 모색 필요

### ■ 고등어 생산통계의 과소 추정 문제, TAC 확대 및 기계화자동화 필요

- 국내 고등어류 생산통계의 문제점은 조사체계 상의 문제도 있으나, 양륙, 선별, 유통 등 거래 관행의 문제도 다수 존재함
- 고등어는 TAC 대상어종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계통 출하 비중이 높아 생산통계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계통 및 비보고 출하량이 공식 통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수작업 선별, 상자단위 위판, 고봉 입상 관행 등으로 고등어 생산량이 과소 추정되고 있음
- 향후 TAC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면, 생산통계 과소 추정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선별인력 교육 강화, 철저한 어종별 분류, 샘플조사 확대와 실측 강화를 통해 생산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동선별기 활용으로 생산통계 개선, 제도적으로는 생산통계 조사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표 4. 고등어의 생산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비 고
소량이나, 비계통 출하량 有	(단기) TAC 대상 업종 확대 (장기) 생산통계 조사체계 개선	제도
위판 시 수작업 선별(분류 문제)	(단기) 선별인력 교육 강화 (장기) 자동선별기 도입 및 확대	구조
상자단위 위판(상자 수×무게 = 위판량)	(단기) 샘플조사 확대 및 실측 강화 (장기) 자동선별기 도입 및 확대	구조
고봉입상 위판(거래 관행)	(단기) 샘플조사 확대 및 실측 강화 (장기) 자동화선별기 도입 및 확대	구조
TAC 외 업종 표본조사(통계청)	(단기) 대형선망 외 전 업종 TAC 확대	제도

자료: 저자 작성

### ■ 고등어 수출입통계 문제, 수율 환산표 재산정 및 HS코드 부여 필요

- 최근 망치고등어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별도의 HS코드가 없어 수급통계의 혼선을 초래하였음
- 또한 고등어 필렛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양은 기타어류의 냉동 필렛에 포함되어 고등어 공급량 과소 추정의 문제가 있음. 이러한 고등어 수출입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망치고등어를 포함한 고등어류로 통합관리가 필요함
- 단, 생산통계는 품종별로 별도 관리하고, 수급통계 시 통합관리 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수산물 환산 수율표 재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실측 기반의 수산물 환산 수율표 제시를 위해 학계, 업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TF팀 구성 필요
- 단기적으로는 고등어 필렛 수입통계는 현재 공표되고 있는 식약처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고등어류 수급통계에 반영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5년마다 개정되는 HS 협약에 고등어 필렛과 망치 고등어에 대한 별도의 HS코드 부여 추진이 필요함

표 5. 고등어의 수출입통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비 고
망치고등어 수출입통계 관리 부재	(단기) 고등어류 통합관리(수급) 단, 통계는 품종별 별도관리	구조
고등어 필렛 수입 급증, HS코드 부재	(단기) 식약처 통계자료 활용 (장기) 별도 HS코드 부여	구조
수율환산 품목특성 미반영(일괄적용)	(단기) 품목별 환산수율표 재산정 단, 실측 기반 재산정 필요(TFT 구성)	구조

자료: 저자 작성

## ■ 고등어류 재고통계 문제, 재고조사 법제화 및 재고관리시스템 필요

- 고등어류 재고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재고량조사의 법적 근거가 다소 약하다는 점이며, 현재 수품원 훈령에 근거해 시행 중임
- 현행 법령 상 수산물 재고량조사의 별도 조항이 없음. 이로 인해 적은 표본 수, 무응답, 응답자의 일관성 미흡 등 재고조사 표본 오류의 문제와 대상품목 수, 조사주기, 단순집계, 모수 변동성 등 비표본 오류의 문제도 상존함
- 단기적 방안으로 현행 재고조사를 실시하되, 조사방법, 대상, 시기 등에 대한 매뉴얼 개발 통한 재고통계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기존 고등어(식용) 조사의 신뢰성이 높을 경우 비식용 추가 필요하며, 이는 고등어 비식용 추정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재고량조사의 문제 중 자율적 보고방식에 의한 단순집계 문제는 검수 또는 검증방법 도입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조사대상 중 무작위 표본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보고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재고조사 법제화와 재고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전자는 기존 법령에 해당 조항을 의무화해야 하며, 후자는 냉동·냉장수협 회원사 대상 일명 수산물 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물 재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함



표 6. 고등어의 재고통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비 고
재고조사 표본 오류 문제 (적은 표본 수, 무응답, 응답자 일관성)	(단기) 재고조사 방법 매뉴얼화 (장기) 재고조사 법제화(훈령→법령)	제도
재고조사 비표본 오류 문제 (품목, 조사주기, 단순집계, 모수변동성)	(단기) 비식용 포함, 검수검증 도입 (장기) 냉동·냉장업 ERP 구축	구조

자료: 저자 작성

## ■ 고등어류 식용비식용 문제, 용도별 실태조사의 법제화와 조사체계 구축 필요

- 고등어류의 유통(소비)통계 문제는 식용·비식용 고등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임. 수산물 수급 및 물가관리 정책은 주로 식용이 대상임. 현행 고등어류 수급통계는 비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수산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로 작용함
- 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유통실태조사 시 비식용 고등어 유통량을 추정하여 공표하는 것임
  - 단, 비식용 고등어 추정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업종별수협 및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의 보고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일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등어의 용도별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임
  - 이는 용도별 실태조사에 대한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용도별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함

표 7. 고등어의 유통(소비)통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비 고
비식용 고등어 유통량 추정 미흡	(단기) 유통실태조사 시 추정(연 1회) (장기) 비식용 추정방법론 개발 (연구)	구조
용도별 미분류, 비식용 추정 곤란	(단기) 사료용·미끼용 보고 의무화 cf. 사료용(업종별수협), 미끼용(원양산업협회) (장기) 용도별 실태조사체계 구축	구조 제도
어종 구분 곤란, 유통질서 문제	(단기) 교육 및 홍보 강화 (장기) 용도별 실태조사체계 구축	구조

자료: 저자 작성

##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법제화와 전담조직 신설 필요

### ■ 수산물 수급통계의 제도적 개선, 정책의지와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 수급통계는 수산물 수급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차원을 넘어, 수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수산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가 큼
- 현행 고등어 수급통계의 문제는 생산통계의 과소(또는 과대) 추정의 문제, 수출입통계의 수출 환산 문제, 재고통계의 신뢰성 문제, 유통(소비)통계의 비식용 문제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나 조직 구성 방안 등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 수급통계 개선 위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

- 첫째, 고등어 수급통계 개선은 법제화 추진이 우선되어야 함
  -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을 위해서는 수산물유통법 제6장(수산물 수급관리)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신설 조항에는 “주요 수산물의 생산량, 재고량, 감모량, 폐기량, 소비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조사되지 않는 감모량, 폐기량 및 소비량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조항은 가능한 한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산물유통법에 해당 조항의 신설과 함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및 시기 등 명문화 필요가 있음
- 해당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벌 조항보다는 인센티브 조항 반영도 고려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법령의 의무사항을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두는 것과 달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수산물유통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하여, 용도별 수산물 실태조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고등어류 식용비식용 구분 및 이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재로 수산물 수급 및 물가관리의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임. 세부적인 실천전략은 향후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마련

- 둘째,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마련이 요구됨. 구조적 개선방안이 단기적 방안이라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은 중장기 방안에 속함
- 기본계획에는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방향 및 목표, 절차 및 방법, 추진전략, 중장기 로드맵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물유통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의 4(수산물 수급관리)를 준용할 수 있음
- 연도별 실시계획에는 수산물 수급통계인 생산, 수출, 재고, 소비(용도별), 감모, 폐기 등에 대한 조사방법 등 명시 필요
- 기본계획 수립 전 단기적 방안으로는 가칭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TF팀’ 구성 및 운영 필요
- 해당 TF팀을 통해 현재 당면한 수산물 수급통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천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 수산물 수급통계 전담조직 신설, 단기적으로 협의회 운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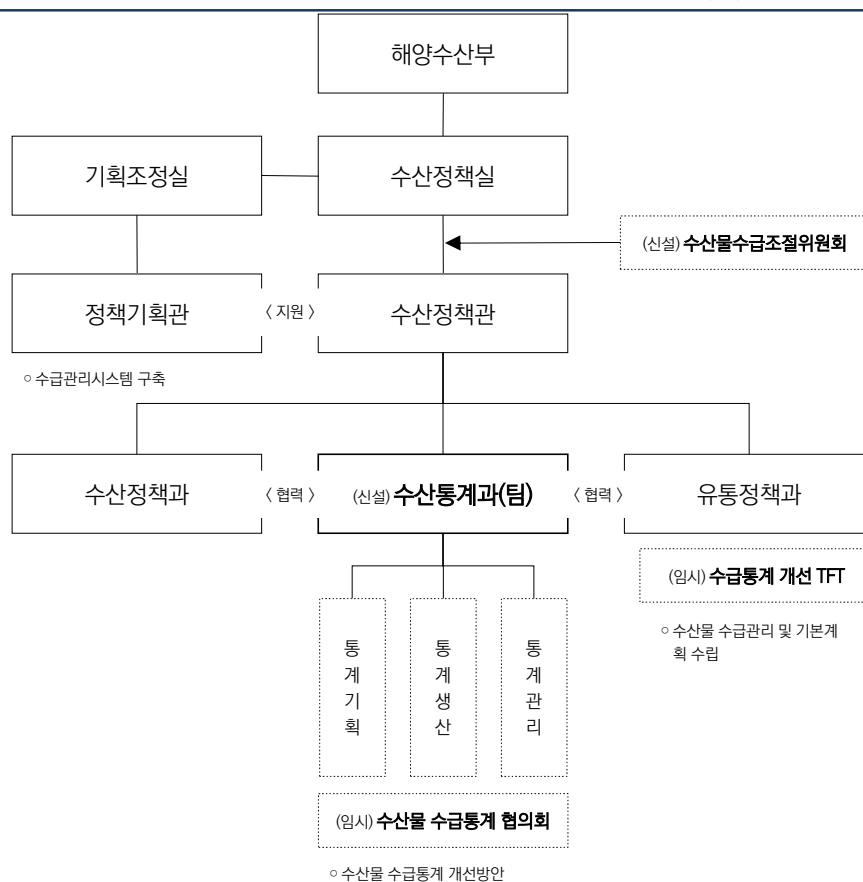
- 셋째, 수산물 수급통계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함. 이는 수급통계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적 방안으로 수산물 수급통계 전담을 위한 해수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임
- 수산물 수급통계 일원화 및 품질제고 위한 컨터롤 타워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는 수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조를 준용 가능함
- 전담기관의 역할은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신규 통계 개발(TAC 포함) 등이며, 해수부, 통계청, 수협, 관세청, 국립수산물과학원, FIRA, KMI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는 ‘수산물 수급통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수부 내 가칭 수산통계과(팀)를 신설하여야 함

## ■ 수산물 수급통계 및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필요

- 넷째,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이는 수산물 수급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는 기구임
- 현행 수산물유통법에 근거하여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이는 수급보다 전반적 유통체계, 유통산업 발전 등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함
- 따라서 수산물 수급정책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요구되며, 법적 근거는 수산물유통법 제6장에 별도 조항 신설이 필요함. 농안법 제8조 및 농식품부 훈령 준용이 가능함

- 해당 위원회의 역할은 수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판단에 관한 사항, 수산물 수급안정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임
  - 수급조절위원회에는 해수부, 기재부, 통계청, 국립수산물과학원, 수협중앙회, KMI 및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및 소비자단체 대표, 연구 및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에서 제시한 수산물 수급통계 전담조직 구성(안)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4>와 같음
- 우선 수산물 수급통계 컨터롤 타워인 가칭 수산통계과(팀)를 수산정책관실 내에 신설하며, 수산물 통계 기획, 생산, 관리를 전담함. 임시적으로 수산물 수급통계협의회를 구성함
  -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TF팀은 유통정책과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수산물 수급관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구성하며, 수산물 수급관련 중요 사항의 자문 및 심의함

그림 4. 수산물 수급관리 및 통계 전담조직 구성(안)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2019.09.04.
URL: <a href="https://www.kmi.re.kr/">https://www.kmi.re.kr/</a>		